제 11 강 분열분석과 탈주의 윤리학 1

◆ 정신분석과 분열분석

※ 학습목표
정신분석과 분열분석의 차이를 이해한다

▲ 정신분석과 분열분석
들뢰즈-가따리는 자신들의 작업을 분열분석 schizo-analyse 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정신분석 psycho-analyse 에 대한 안티 테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안티-오이디푸스'가 명시해주는 것처럼 분열분석은 정신분석의 오이디푸스 테제를 반대합니다. 오이디푸스 테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공리계 속에, 신경증자의 무의식적 욕망 속에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들뢰즈-가따리는 바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현실적 존재를 반대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사라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안티-오이디푸스'의 가장 간명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해 놓고 그것을 욕망하는 존재, 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보편의 무의식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 태어나며 부모의 양육에 의해 욕구를 충족하며 부모의 말에 의해 무의식적 욕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간적 삶의 근본 조건이자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욕망은 완전한 충족의 금지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며 그 구조적 결여를 받아들이는 한에서만 사회적 상징 질서가 수립된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입장입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욕망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은 분명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리입니다. 그런 이론적 공리가 없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은 붕괴되고 자본은 재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분열분석이 안티-정신분석인 것은 정신분석이 재생산하는 그런 공리의 현실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 파시즘적 주권형성체로부터 탈주
'어떻게 인간이 국가 없이, 가족 없이, 자본 없이 살 수 있지?' 라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두려움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분열분석은 이 지점에서 정신분석의 욕망에 대한 이해 방식에 반대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결여를 통해, 결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결여를 결여'한 존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정신분석의 이해방식이 한낱 신학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을 고발합니다. 결여를 결여한 분열증적 욕망은 미분화된 혼돈상태도 아니고 '만인의 전쟁'에 대한 열망도 아니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폐증적 의식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분열분석의 이론적 과제입니다.
욕망은 현실에서 결여된 환상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실재 자체를 생산하며, 욕망하는 생산은 총체적 구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을 접속시켜 기계적으로 작동하며 기계들을 생산합니다. 욕망의 기계는 부재하는 표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표상으로부터 이탈하는 물질적 흐름을 생산하며 욕망의 흐름은 국가의 영토와 가족의 코드와 자본의 공리로부터 탈주하는 흐름입니다.
욕망은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가 아니라 하나 없는 비-전체, 애초부터 하나는 알지도 못하는 분자들의 분열입니다. 분열분석은 욕망의 분열성이 두려워할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성이자 사회의 발전 동력이자 웃음과 쾌락의 원천임을 밝힙니다. 정신분석은 욕망에서 불안하고 불길하고 불만스러운 인간의 얼굴을 보지만 분열분석은 욕망의 생산에서 유쾌한 파격과 천진한 일탈과 천재적인 창조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 정신분석가가 할 일
정신분석은 '환자'를 분석 '주체'로 세웁니다. 환자는 자신의 욕망을 이해할 수 없어서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사실 그들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분석가가 할 일은 환자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소외된 지식을 주체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자를 이렇게 무의식적 앎의 주체로 세우면서 그들의 타자화된 욕망을 주체화하도록 해 줍니다. 정신분석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렇게 타자의 지식과 욕망을 주체화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환상을 가로질러 네 욕망의 실재와 대면하라!' 그러기 위해 욕망이 생기는 곳마다 그것이 타자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검증하는 진실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는 정언명제와 “네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는 정언명령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합니다. 이 초자아의 진실 탐지기를 내장하는 순간 욕망기계는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정신분석은 끊임없는 망설임(신경증)과 자살적인 폭발(편집증)의 양자택일적 선택지 말고는 다른 전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욕망을 통한 주체

분열분석은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이 형이상학적 믿음에 불과함을 폭로합니다. 깊은 도랑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주체와 타자는 현세와 내세, 천국과 지옥 같은 신학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주체와 타자는 욕망의 현실 넘에 있는 초월적 가상에 불과합니다. 욕망생산의 실재계에는 부분대상들의 접속과 집합적 신체의 구성과 다양한 효과들의 발생만 있습니다. 욕망하는 생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부분대상으로서 다른 부분대상들과 접속하여 공통의 신체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집단의 이름들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굳이 ‘타자’를 찾는다면, 욕망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타자화됩니다. 욕망을 통해 우리는 다른 존재와 결합하여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여기서 굳이 ‘주체’를 찾는다면, 욕망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주체화됩니다. 욕망을 통해 우리는 매순간 타자로의 변이를 일으키는 힘의 주체가 됩니다.

▲ 욕망의 집합적 구성과 분자적 운동

정신분석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론인 것처럼 그에 대항하는 분열분석 역시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분석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신분석가가 아니라 환자, 부모, 교사, 교관, 경찰, 검찰, 검열관, 교회, 언론, 네티즌, 정당, 대통령 등입니다. 욕망을 부재하는 표상에 결부시켜 해석하고 구조화하고 포기시키는 집단, 한마디로 욕망에 결여를 도입하는 모든 집단이 정신분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열분석을 사용하는 사람 역시 들뢰즈와 가따리가 아니라 환자집단,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교사들, 동성애자집단, 예술가집단, 혁명가 집단 등입니다. 욕망을 실재적 생산의 원동력으로 삼아 사회적 코드와 영토적 표상들을 탈주하는 흐름을 생산하는 모든 집단이 분열분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정신분석 집단도 없고 분열분석 집단도 없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신분석집단이 되기도 하고 분열분석 집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개인화된 욕망을 초월적 권력이나 단일한 집단의 구성에 사용하면 정신분석집단이 되는 것이고 욕망을 집합적으로 구성하고 분자적으로 운동시켜 탈코드화하고 탈영토화하는 흐름을 생산하면 분열분석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 정신분석집단에서 분열분석집단으로

얼핏 봐도 느끼는 것이지만 정신분석집단이 되는 것은 쉽지만 분열분석집단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거대한 정신분석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항상 우리에게 ‘안전’과 ‘생존’의 위협을 통해 자아의 죽음본능을 예속의 욕망으로 흡수하고 자본은 항상 우리를 자본의 흐름에 포획된 수입의 흐름에 종속시켜 잉여가치로 흡수될 결핍과 결여를 생산하게 하며 가족은 항상 우리를 화장실의 욕망, 침실의 욕망, 성적 판타지에 종속된 욕망으로 사유화하여 결여와 예속의 흐름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자본과 국가라는 거대한 정신분석집단 속으로 흡수되는 것은 강요되기 이전에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예속집단 groupes-assujecttis 에 속하는 것 역시 욕망의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분열분석집단이 되는 것은 국가에 대항하고 자본뿐만 아니라 수입을 거부하며 가족의 안락함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욕망의 사용처럼 보입니다.

▲ 욕망하는 생산의 주체집단으로서의 분열분석

들뢰즈-가따리는 이 지점에서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제목의 ‘안티’를 떨쳐 냅니다. 분열분석집단은 국가와 자본과 가족에 대항하는 안티-집단이 아니라 욕망하는 생산의 주체집단 groupes-sujects 입니다. 욕망의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하는 생산 능력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 주체집단입니다. 주체집단의 과제는 오이디푸스의 부정과 대항에 있는 게 아니라 오이디푸스를 모르는 욕망의 생산과 탈주에 있습니다. 박터지게 맞서 싸우다 똑같아지는 대항의 전략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길이지만 막혀 있던 길을 개척하며 따라가는 것이 주체집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욕망의 주체집단이 되는 것은 애써 욕망을 억압하는 예속집단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욕망의 탈주선들(lignes de fuite)을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국가와 자본과 가족에 예속된 집단이 뒤에서 원한과 위협의 고함을 지르든 제 갈 길을 가면 됩니다.

▲ 파시즘적 욕망의 지표
탈주는 욕망하는 생산의 '과정'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생산의 과정에는 무수한 영토와 코드와 공리의 벽이 있으며, 그 벽들에 부딪혀 중단되거나(신경증) 공전(空轉)되거나 (도착증)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정신병)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와 저마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의 '살아있는 허구' 속에서 그 과정을 탐사하고자 합니다.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 1942~)이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의 『우리 집에 불났어』(1990)에 실려 있는 단편들이 그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의 칠레사회를 다룬 이 소설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안티-오이디푸스'의 윤리학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단편소설들은 1970년 9월 '아옌데'라는 사회주의자의 대통령 당선과 합법적인 사회주의 혁명 실험, 그리고 1973년 9월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로 인한 반혁명을 배경으로 칠레 민중들의 일상생활과 미시적인 욕망의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 파시즘적 리비도 투여로부터의 이탈
우선, 욕망의 탈주는 파시즘적 리비도 투여로부터 이탈하는 선들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파시즘은 단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정부형태가 아니라 욕망생산의 가장 반동적인 극입니다. 라이히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파시즘은 그 '억압적' 성격만큼이나 '유혹적'인 리비도적 투여방식입니다. 파시즘은 국가체제 하나만이 아니라 가족, 학교, 노동조합, 사적인 인간관계, 개인의 꿈과 환상 등 '분리될 수 있는' 욕망기계들의 몰적인 공급방식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을 보려면 정치사나 정부형태가 아니라 가장 미시적인 욕망의 지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섹슈얼리티와 사랑은 가장 뚜렷한 욕망의 지표입니다.

▲ 파시즘적 욕망의 섹슈얼리티와 사랑 -『뿌따마드레』
「뿌따마드레」는 파시즘적 욕망의 섹슈얼리티와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때는 1975년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 2년 후 칠레의 해군 훈련함 에스메랄다 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입항합니다. 소설은 이 배에 타고 있던 해군 훈련생 뿌따마드레 일행의 하루 밤 하선 휴가 여정을 따라갑니다.

◆ 파시즘적 욕망의 섹슈얼리티와 사랑

※ 학습목표
파시즘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엿본다.

▲ 파시즘적 욕망의 섹슈얼리티와 사랑 -『뿌따마드레』
뿌따마드레 일행은 예의 그 고문과 성폭행을 마치고 하루 저녁의 특별 하선 휴가를 즐기러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창녀촌'입니다. 뿌따마드레의 눈에는 여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촉수는 오직 '올라 탈' "금발의 쾌속정"을 향해 뻗어있습니다. 자신의 부푼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꽂은 다음에야 "남자답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들의 남자다운 군인정신입니다. 남성의 성욕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그토록 욕망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 엄마와 누이만 빼놓고 여자들은 모조리 화냥년이야" 라는 말 속에 배어있는 태도 말입니다. 욕망의 대상은 존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여성을 욕망하면서도 혐오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혐오가 쾌락의 양태가 되는 것을 사디즘이라 부릅니다. 상대를 파괴하고 학대하고 모욕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남성들도 이런 가학적 쾌락을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발데스, 너한테 비밀 하나를 말해주지. 모든 관계에서 최고의 순간은 계집애가 진정으로 그 짓을 원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란 말이야." 말은 안 해도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욕망하는 것은 성관계 자체의 기쁨이 아니라 대상을 굴복시켰다는 사실, 상대방을 성적 노예로 복종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앎이 쾌락의 원천이 되는 이런 가학적 성욕은 역설적으로 욕망 대해서는 불능(impotence)입니다. 정작 자신은 욕망의 생산적 기쁨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기는 부풀어오르기만 할 뿐 충만한 기쁨 끝에 평화롭게 잦아드는 '오르가즘' 기능이 고장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꿰뚫어 죽음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부풀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르가즘의 구조는 긴장 에너지의 축적과 그것의 일시적인 격차, 그리고 평화롭게 잦아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노예로 굴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이 이들이 얻는

무의식적 쾌락의 전부입니다. 즉 기관 없는 신체의 죽음 상태에서 오는 평화로운 기쁨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로지 상대방이 노예라는 사실로부터만 행복을 느끼는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 가장 비굴한 노예

이런 '인정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자의 존재와 노예의 인정에 의존해서만 쾌락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즉 타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비굴한 노예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떤 자존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가족'이나 '군대', '민족', '국가'라는 더 큰 '나'의 집단적 동일성(identity) 속에서만 자긍심을 찾습니다. 초월적 일자를 매개로 동질화된 '예속집단'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이들, 혼자서는 못 노는 다 큰 어린애들의 과장된 위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소한 자아를 보상받고자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강하고 큰 것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이 친구야, 사랑까지 포함해서 못 사는 게 없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창녀가 있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과 교환되기 때문에 돈만큼 힘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화폐의 이 일반적 교환능력은 구조적 필연이나 합리적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화폐 공동체의 신앙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그 화폐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폐는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몰적인 집단에 속하기 좋아하는 이 작은 인간들은 '상대성'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엄마와 누이만 빼놓고 여자들은 모조리 화냥년이야" 라는 말을 타인이 한다면, 자신의 말에서 화냥년으로 지목된 여자가 그에게는 엄마와 누이이며, 자신의 말에서 엄마와 누이로 지목된 여자가 그에게는 화냥년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우리'로 확장될지언정 타자화되지 못하고 타인은 '적'으로 확장될지언정 주체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밖에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은 주체화된 타자를 만나면 어리둥절하거나 자기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자신은 "조국을 수호하는" "국가적인 영웅"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본 금발의 미녀는 "고문의 배를 저지하라. 칠레를 보이코트하라!"는 선전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근에 굴복해야할 "화냥년"이 자신을 대상화한 주체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신의 성욕을 배출시켜 줄 '창녀'를 찾고 있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들의 '보이코트'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에스메랄다호의 훈련생들에게는 성을 팔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돈의 힘보다 때로는 도덕적 결의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 돈의 힘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까요?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이코트 당한 뿌따마드레 일행은 에스메랄다호 보이코트 전단지를 붙이던 금발 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뭐하러? 뭐하러겠습니까? 파시스트의 본색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공격!

▲ 파시즘과 자본주의

여기서 우리는 파시즘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분명 성의 상품화라는 자본의 공리계 속에 존재합니다. 자본의 공리계는 개인의 '자유'에 근거합니다. 생산수단과 전통사회의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의 노동력이 자유롭게 팔릴 수 있는 조건 위에서 자본주의 공리계는 작동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신의 성노동을 팔지 않을 자유가 있고 실제로 자본의 논리가 아닌 선의 혹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돈의 무소불위를 믿었던 뿌따마드레 일행은 자유로운 노동력의 판매라는 자본의 공리에 의해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각 자본의 공리를 저주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파시즘과 자본은 서로 다른 사회기계입니다. 파시즘은 '원국가'의 초코드화를 모델로 한 억압기계이며 자본은 탈코드화된 흐름의 공리화로 이뤄진 억압기계입니다. 자본주의는 시초축적과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기계를 자신의 공리계로 끌어들인 사회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분리되거나 대립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 파시즘은 자본과 국가의 분리 가능성 위에서 출현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원국가의 초코드화하는 힘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열망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의 축적을 실현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파렴치한 모순을 환상적으로 해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국가의 힘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생산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국가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중적 열망에서 탄생한 파시즘은 자본주의 국가의 환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 자본주의의 파렴치한 모순
『상표의 영역』은 파시즘과 사회주의가 경합을 벌이던 자본주의의 파렴치한 모순을 우화적으로 보여줍니다. 25%의 실업률 속의 한 가장이 유망한 신제품 외판원으로 취직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프롤로그와 함께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려 10%의 커미션을 먹고 팔게된 그 신제품이라는 게 좀 황당합니다. "건강과 가정"이라는 명의의 회사에서 만든 초인종인데, 그걸 누르는 손가락의 땀과 떨림을 정밀하게 감지하여 강력한 전기자극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땀이 맺히는 사람에게 일순간 강력한 전기자극으로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창문을 닦는 일이든 개를 산보시키는 일이든 낙엽을 긁어모으는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부인, 선생님, 아가씨,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애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황당한 초인종의 능력은 환상적입니다. 집안의 족보까지 꿰고 있고 방문자의 인상착의는 물론 그의 내면과 집안 내력과 교양 정도와 현재 처지를 정확하게 감지해 냅니다.

◆ 단절의 윤리학

※ 학습목표
단절의 윤리학으로 나아가야하는 이유를 안다

▲ 소비욕구의 신분적 코드화
고가의 구제 옷을 입고 올 '우리'들에게 실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근의 패션 경향까지 꿰고 있으며 한달에 한 번씩은 집주인의 자비심을 증명해줄 적당한 인물을 골라낼 수도 있으며, 집주인 부부가 다툴 때는 초인종을 울려 주의를 돌리게 하는 '센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상품 이야기는 단지 우화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상품은 일반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분할선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살기 위한 영토가 아니라 팔기 위한 탈영토적 상품이 되었을 때,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 아니라 학벌자산의 수단이 되었을 때, 얼굴과 신체가 교환가치를 지닌 외모자산이 될 때 부자의 집과 가난한 사람의 집, 부자의 학교와 가난한 사람의 학교, 부자의 몸과 가난한 사람의 몸은 확연히 나눠집니다. 이전의 상품가치를 잠식시키는 새로운 소비욕구는 평균화의 극한을 항상 더 멀리 이동시킵니다. 그로 인해 상품들마다 '후진' 상품과 선진 '귀족' 상품의 신분이 매겨지고, 상품의 신분은 소비자의 신분을 표시해 줍니다. 상품을 통해 고풍스러운 '신분의 코드'가 부활합니다. 소비욕구의 신분적 코드화를 통해 자본은 수입의 흐름에 종속된 사람들의 삶을 탈-가치화하고 그로부터 잉여가치를 창출합니다.
물론, 소비의 코드를 통한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입의 흐름과 자본의 흐름이 동일한 화폐 순환 속에서 합류되어야 하며 그런 합류는 서로 다른 두 흐름의 동질성이라는 '평등'의 형식을 지닙니다. 형식적으로 상품은 평등합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상품을 통해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등의 외관이 없으면 상품의 신분적 차별화는 잉여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합니다. 상품의 평등한 외관을 믿고 자본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자본은 수입의 가치를 홀랑 벗겨냅니다. 건물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회전문'처럼. 보통의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둘 중 하나라면 회전문은 항상 닫혀 있으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항상 닫혀 있지만(냉난방 효율을 위해) 밖에서 보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형식을 믿고 섣불리 밀고 들어갔다가는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진땀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발한 초인종을 팔러 나선 우리의 가난한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품의 '재능'을 자세히 듣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자집 문 앞에 선 그는 "초인종을 울리기 직전에 뭔가를 깨달은 듯 물러서고 싶어한다. 그는 뭔가를 감지하지만 마치 손가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듯 자신의 손가락이 비정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광경을 본다.…이 집에서도 다음 집에서도 다음 다음집에서도 그 제품을 팔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이해한다." 자본의 파렴치한 분리선이 날카롭게 감지될 때, 상품의 형식적 평등이 붕괴될 때 가난한 외판원은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망치를 들고 부자집의 문을 부숴 버립니다.

▲ 단절의 윤리학
부자집의 문을 부숴 버리고 싶은 대중의 열망은 분명 혁명적 열망입니다. 그것이 편집증적 리비도 투여의

양태로 발현될 때 가장 반동적인 파시즘이 됩니다. 파시즘은 원국가의 회귀이지만 그것은 위로부터의 회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회귀입니다. 파시즘은 혁명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으로부터 발생한 대중운동이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증오가 극에 달할 때 파시즘은 가장 몰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공급합니다. 부자들을 타도하라!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라! 시장의 공리는 필요 없다 오직 순결한 혁명의 의지와 폭력의 힘만이 삶을 해방시키리라! 「상담」은 자신이 고문하고 있는 의사에게 의료 자문을 구하는 고문기술자의 이야기입니다. 파시즘의 인간관계는 고문자와 피고문자처럼 물리적 힘(폭력)으로 이뤄진 관계입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적 인간관계는 의사와 환자처럼 상품과 화폐의 등가교환을 목표로 하는 계약적 관계입니다. 물론, 이 등가교환에도 힘의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상품 소유자와 화폐 소유자의 역학관계는 상황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품 소유자보다 화폐소유자가 힘이 세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상품 소유자가 힘이 더 셉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 소유자가 화폐 소유자에게 굽실거리지만 의사나 변호사처럼 (국가가 인증한) 전문지식을 파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상품은 비싸서 구매하기도 힘들지만 정작 구매현장에서도 화폐소유자가 상품소유자에게 굽실거립니다. 「상담」에서 아옌데파에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를 고문하고 있는 피노체트파 장교는 자신의 물리적 권력을 이용하여 평상시라면 비싼 돈을 주고 굽실거리며 샀을 의료 지식(당뇨환자의 식이요법)을 공짜로 얻으려 합니다. 한편 아옌데파 의사는 고문장교가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과 자신의 '지식'을 맞바꾸기 위해 열심히 굽실거리며 의료 상담을 제공해 줍니다.

이 대략 난감한 상황은 파시즘이 자본주의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파시즘이 자본의 파렴치함에 분노하는 대중에 영합할 때조차 그것은 자본주의 공리 자체를 철폐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시즘은 국가라는 합법적 폭력장치를 이용하여 시장을 장악합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역학관계를 역전시킬 뿐 불평등한 관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자국과 1세계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불평등을 철폐한다고 하면서 파시즘이 하는 일은 자신의 위치를 '피착취국'에서 '착취국'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또 다른 피착취국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변호사나 의사집단, 혹은 강남의 부동산 재벌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불만이 자본의 공리계 자체의 무력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특권에 대한 무의식적 선망의 전도된 형태인 특권에 대한 증오에 그친다면 그 증오의 블랙홀로부터 파시즘의 싹은 틔워질 것입니다.

이 소설의 파시스트 고문장교는 아주 뻔뻔합니다. 자신의 폭력적 권력을 이용하여 피고문자의 의료 상품을 공짜로 수취하려고 한 것도 뻔뻔하지만 더 파렴치한 것은 이 폭력적인 권력 관계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피고문자가 풀려나고 난 이후에도 둘 간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넬 풀어주면, 내가 자넬 부르러 사람을 보낼게. 걱정 마. 며칠간은 푹 쉬게 해줄 테니" "우린 장교클럽에서 다정하게 몇 잔 마시는 거야. 근사하게 환담도 나누고 말이야. 우린 가격에 대해 합의를 볼거구, 그리고 내 아들을 보러 가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네가 내 아이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어때?" 과연 이 폭력적인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이 둘은 지난 일을 잊고 '인간적'으로라다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윤리적일까요? 물론, 그 장교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의사에게 몽둥이를 갖다 댄 것이지 인간적으로 의사가 미워서겠습니까? 그러니 이 '비인간적인' 상황이 종결되고 나면 다시 '인간적'으로라다가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해방 후 일제 잔재 청산을 무력화시킨 '대화합'의 윤리, 휴머니즘적 관용의 윤리. 윤리를 항상 '인간적' 관계의 지속에서만 찾는 습속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 삶은 때론 무자비한 관계 단절을 요구합니다.